

# 광주 서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선제 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회의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 서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사전 점검 침수취약지역 정비·인명피해 예방 총력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청 민방위실전훈련센터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난 대피기간을 앞두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5월 강수량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에 따라 서구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 등 풍수해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서구는 회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소화천, 하수도시설 등

방재시설 200개소와 재난취약지역 35개소를 점검하고 침수·배수 불량 등 위험요인을 정비했다. 또 상습침수구역 5개소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예찰 및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방자재 수요조사와 장비 점검·배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촌교 하부도로 차단시설물 설치, 동남아파트 주변 침수방지 압송관로 설치, 서창천 산책로 진입로 스마트 자동차단장치 설치 등 주요 예방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체계도 확인했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 21명을 파악하고 주민대피지원단 46명을 구성한 대피체계,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도 점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예측보다 빠른 준비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이다"며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체계를 촘촘히 점검해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광역시 주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업무 평가'에서 사전대비 점검과 현장 대응 역량 등 분야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이어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기자

## 남구, 온실가스 예산제 1년 '1,143톤' 줄였다

### 86개 사업 중 정량평가 41개 사업 분석 지역 자치구 최초 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목표 달성 91.9%, 저탄소 재정운영 성과

광주 남구가 지역 자치구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1년간 선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한해 온실가스 1,143톤을 감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최근 2025년 온실가스 예산제 결산서를 작성·완료하고, 공공 부문 탄소배출 관리 성과와 감축 실적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산 개념으로 관리하고, 실제 감축량을 공개한 사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

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청 각 부서의 탄소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에 나섰으며, 구청 각 부서의 온실가스 관련 86개 사업 가운데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41개 사업의 결산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1년간 감축한 온실가스는 목표 달성률의 91.9%인 1,143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표준 탄소흡수량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년생 소나무 17만 3,736그루가 1년간 흡수한 탄소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주요 부서의 감축 성과를 보면 탄소중립과는 관내 주택과 상업 건물, 공공건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830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내 가정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 탄소 배출량 86톤 가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경관리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생활권 주변 유흥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22톤과 7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이번 결산서에는 단순 감축량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율

적으로 감축 정책을 발굴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자체 평가 및 종합 의견 등도 함께 담았다. 남구 관계자는 "향후 매년 결산서를 정례화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행정기관이 먼저 탄소배출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실천적 선언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 부서별 탄소 배출을 수치화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 사업을 지속 보완하고 공공 부문을 넘어 지역 전반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확인하는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